

† < 미사 안내 >

부활성야 미사 독서: 정나미 모니카, 이재니수 로사, 전은숙 글라라, 이종재 프란치스코
 부활 미사 독서: 고성호 요한, 박현성 세라피나
 부활성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우상인 사비나
 부활 미사 복사: 신승원 로이, 우상인 사비나
 부활성야 미사 해설: 조은경 수산나, 전은숙 글라라
 부활 미사 해설: 김보미 로사, 최고은 소피아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복 음

마르코 복음 16,1-7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 내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겔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128 봉헌:210 성체:187 파견:134

부활삼종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주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공지사항

1. 세례 성사 안내 - 4 월 8 일 오후 2 시/견진 성사 안내 - 4 월 11 일 오후 7 시
2. 사순시기 동안 모금하셨던 Rice Bowl을 성당으로 (한진 베드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 매일 미사 책의 가격이 인상 (\$5 -> \$8)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 바오로

(608) 628-7977

부활성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 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4월 7일

<제2 독서>

창세기 22,1-18<또는 22,1-2.9 ㄱ.10-13.15-18>

화답송

<제3 독서>

탈출기 14,15 — 15,1 ㄱ

화답송

<제5 독서>

이사야서 55,1-11

화답송

<서 간>

화답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은 제 뒤통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탈출기 14,15 — 15,1 ㄱ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쟁.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

○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

○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나이다. ◎

○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나이다. ◎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군쟁.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려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로마서 6,3-11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부활 미사 독서: 고성호 요한, 박현성 세라피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한영주 리드비나, 홍진국 클레멘스	봉 헌 금: \$170
부활 미사 복사: 신승원 로이, 이상인 사비나	교 무 금: \$130
다음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2 차 헌금: \$ 64
부활 미사 해설: 김보미 로사, 최고은 소피아	
다음주 미사 해설: 최고은 소피아, 전은숙 글라라	합 계: \$364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 매월 마지막 주는
천교실 정리: 2 구역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사제관 (4 월 20 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 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 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4 월 13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달 넷째주 토요일 미사 후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3 구역	매달 셋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주일 학교 교리 시간에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한 어린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천국에 가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미움을 죽일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용서가 증오를, 평화가 폭력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빛은 암흑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폭력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미움과 증오 앞에서 사랑과 용서로 당신을 죽이셨습니다. 이기심과 거짓 앞에서 이타심과 진리로 당신을 죽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을 죽인 그 자리에 부활의 싹을 틔우셨습니다. 부활은 건너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감입니다. 향락과 재물을 섬기는 삶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건너감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던 마음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너감입니다. 이 건너감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

2012년 4월 8일

<제 1 독서> 사도행전 10,34 ᄒ.37 ᄒ-43

<제 2 독서> 골로새서 3,1-4<또는 1 코린 5,6 ᄒ-8>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줄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요한 복음 20,1-9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133 봉헌:220 성체:188 파견:136